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서 견봉하 스테로이드 주사의 유용성

박진영, 박희곤*, 유문집, 김명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서울 적십자 병원*

Steroid는 부종, 섬유소 침착, 또는 모세관 확장 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근육이나 건의 염증을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을 완하시킬 수 있어 정형외과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견봉하 점액낭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국소적으로 투여한 뒤 이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MRI 검사로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 중 견봉하 점액낭에 steroid을 주사하여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통증 및 관절 운동범위가 최소 50%이상의 호전을 보인 65명의 환자 중 최소 24개월 이상 추사가 가능하였던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평균50.8세로 남자가 18명, 여자가 34명이였다. 40세이하가 6명, 40세에서 50세 사이가 16명, 50세에서 60세 사이가 18명, 60세 이상이 12명이였다. steroid을 주사는 견관절의 전외측방에서 동일 저자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환자의 견관절 평가는 정기적 외래 방문과 전화, 서신으로 지속적으로 추시를 시행하였다.

40세 이하 환자 6명중 주사 후 증상이 좋아진 환자가 2명으로, 2명 모두 주사 후 즉시 완벽하게 좋아졌다고 하였고, 나머지 4명의 경우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40세에서 50세 사이 16명중 50%이상 증상이 좋아진 경우가 5명, 나머지의 경우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50세에서 60세 사이의 18명의 환자 중 50%이상 증상이 좋아진 환자가 3명, 나머지의 경우 증상이 변화가 없었다. 도리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5례에서 관찰되었다. 60세 이상의 12명의 환자 중 증상이 좋아진 경우가 3례, 나머지의 경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2례의 경우에서 역시 더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전체 52명의 환자중 관절내 steroid 주사로 50%이상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13명(25.0%)이었고, 증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34명(65.3%), 도리어 증상이 더 심하여진 경우도 5례(9.61%)에서 관찰되었다. 증상이 좋아지지않은 39명의 환자중 13명(33.3%)은 보조적 치료로 침을, 6명(15.4%)의 경우 뜸을 치료 받았고, 8명(20.5%)의 경우 타병원에서 2주이상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는 얻지못하였다. 또한 4명의 환자는 2회, 3명의 환자가 3회 이상의 steroid 주사를 맞은 경우도 관찰되었으나, 그 효과는 모두 일시적이였다.

견관절 충돌 증후군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시행하는 관절내 steroid주사 요법은 간혹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되었거나 고령의 환자에게는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으며, 계속 투여시 건 파열 등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사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